이천이십사년 | 봄호(통권 24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남북 교류 협력을 꿈꾸다

| 기획특집 | 인공지능 시대, 사전을 생각하다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달라져도 모두 사전이다

남녘말 북녘말

언어의 분단은 사랑으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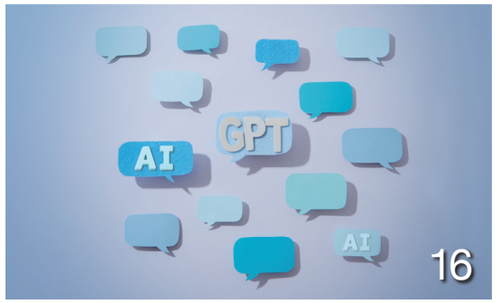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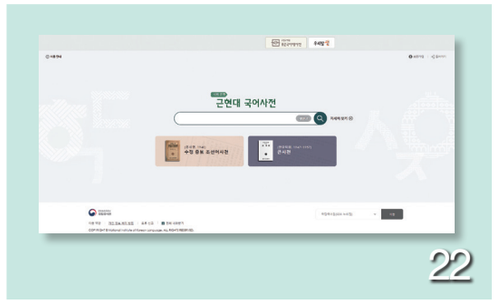
겨레말

이천이십사년 | 봄호(통권 24호)









02 겨레의 창
인공지능(AI) 시대, 통일교육에 대한 단상 · 정진헌

06 겨레말 초대석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남북 교류 협력을 꿈꾸다

12 심상
물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 강건모

기획특집 | **인공지능 시대, 사전을 생각하다**

16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달라져도 모두 사전이다**

18 **칼럼** 1 · 도원영
소소한 예측: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편찬자의 시선

22 **칼럼** 2 · 조은
디지털 시대, 《근현대 국어사전》 시범 개통의 의미

26 **칼럼** 3 · 장경식
《겨레말큰사전》은 미래의 사전이다

겨레말 탐구생활

30 남녘말 북녘말
언어의 분단은 사랑으로 통한다 · 최설

34 뜻풀이 깁고 더하기
시쳇말 · 이형주

38 우리말 보물찾기
박석눈 · 김도연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합니다.
② 본지에 게재된 외부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이 계절의 책
《손말사전(부문별손말)》 · 임서희

44 겨레말 사람들
임보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전문위원
사전 편찬인으로 일한 30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는 어려운 숙제

46 겨레말 소식

48 겨레말 낱말 풀이



'푹낭' 가지 끝에 매달린 물방울 하나

제줏말로 '푹낭'이라 부르는 팽나무 잔가지 끝에 물방울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다가가 들여다보니 물방울 속에 하늘이 들어 있다. 나무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다.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도 들릴 듯하다. 마당 풍경이 비친 것이지마는 매일 보는 그것 같지가 않다.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도 어릴 적에 같은 발견을 했다. 그는 다음의 시를 썼다. "빗방울에/풍경이 비치고 있다/물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본문 15쪽)

글·사진 제공: 강건모

패낸이 **민현식**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패낸날 **2024년 5월 1일**
패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전화 **02)3275-0815** 전송 **02)3275-3715**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02)2266-6372** 인쇄 **(주)태광P&D**

인공지능(AI) 시대, 통일교육에 대한 단상

글 **정진헌**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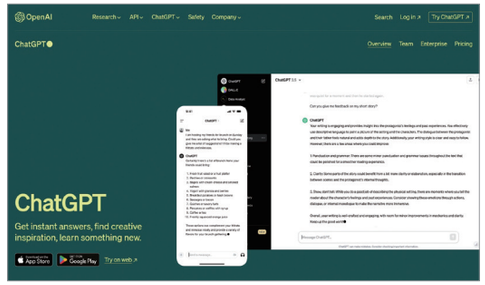
바야흐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시대다. 'AI 시대 통일교육'이란 주제는 인간성(humanity)과 인간다움(humanness)에 대한 고민을 끌어낸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하나의 교보재 정도로 여긴다면 기존의 동영상이나 현장 체험처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면 되겠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AI 시대의 통일교육이라면 답이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무엇을 의미하고, AI 시대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통일교육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AI

AI는 컴퓨터와 기계들이 인간의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장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기술을 집대성한 산물인 셈이다. 인류사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은 극히 최근에 가속화된 현상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은 불과 18세기 후반의 일이며, 19세기 후반,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구조로 2차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20세기 중반에 비로소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산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일구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



↑ 챗지피티 홈페이지(오픈AI 첫 화면).

혁명"이라 정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이 질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기존과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으로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를 꼽는다. 현대의 개인들은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 AI이다. 이 AI는 크게 약인공지능(Weak AI)인 제한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과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및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을 포함한 강인공지능(Strong AI)으로 나뉜다. 이중 우리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각종 가전제품의 AI 기능 등이 약인공지능 영역에 속한다. 인간만큼의 수준을 의미하는 일반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강인공지능은 아직은 이론에 머물고 있지만, 자연어 생성 프로그램인 챗지피티(ChatGPT)로 인해 도래가 빨라질 거라 예상한다.

인간다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일각에서는 가속화되는 AI 기술을 우려한다. 데이터양이 풍부해질수록 인공지능의 성능과 신뢰는 증가하고 그만큼 사용 빈도가 늘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휴머니즘'이다. 어떠한 과학기술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 기술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는 곧 새로운 인간다움의 추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여길 수 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던 것을 기계 덕분에 10시간만 일해도 되는 생활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생산은 기계가 맡고 인간은 분배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리고 남은 30시간을 어떻게 가장 인간다운 활동들로 채울 수 있을지, 즉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삶의 콘텐츠를 즐겁게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다.

AI 시대는 그래서 인간다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유도하고 있다. 근대 과학의 발달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지나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시대를 열었다. 인간과 비인간적 피조물 간의 관계가 보다 평등해졌으며, 개발을 위한 파괴 대신 생태 친화적 공존의 가치를 키웠다. 돌이켜보면, 인간은 한때 신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고 신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급기야 신의 피조물들이 지닌 특성과 능력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모사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시켰다. 새보다 높고 빠른 비행기, 중력을 거스르는 우주선, 바람보다 빠른 정보통신 등 헤아릴 수 없는 발전으로 자연을 '정복'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복의 결과는 오염과 온난화를 불러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그런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적 패러다임이다. 그렇다면, AI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강조되는 휴머니즘은 어떤 휴머니즘일까? 인간다움의 해체가 아니라, 이제 닮음의 오지였던 인간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AI 시대는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시대라 불리기도 한다.

분단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AI

AI 시대는 인간의 생활 공간 확장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인류사의 거대한 족적을 떠올려 보자.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명명한 '축의 시대(Axial Age)'인 기원전 800~300년경, 현존하는 거대 종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유라시아에 등장했다.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연민과 동정, 용서와 사랑, 예절과 품위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전해졌다. 현재적 공간만이 아닌 저승이며 천국, 지옥 등의 또 다른 공간 세계에 대한 인식도 체계화되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사유하고 실천해 왔다.

한반도의 사람들도 그런 초월적 존재들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다. 지난 70여 년의 분단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남북한 사람들 모두를 섬에 가두었다. 밤이 더욱 어두운 북쪽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나 사이버상에서나 매우 제한적인 이동성을 겪고 있다. 반면 남쪽은 근대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례없는 경제 성장,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케이컬처(K-culture)로 대표되는 문화적 성장까지 더해 글로벌화를 체험 중인 한편으로 육지를 통해 경계를 넘나들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독일의 통일 세대들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취업할 때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쉽게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초국적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통일 독일'의 청년 세대와 수도권 중심 지역에서 초경쟁(hyper-competition) 배틀(battle)을 벌여야 하는 '분단 한국'의 청년 세대 간에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힘의 차이가 난다.

분단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 도래한 한반도의 AI 시대는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으라 제안하고 있다. 챗지피티만 보더라도 이제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돌아오는 답의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소통의 능력과 인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것은 일방향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유형의 교육 방식을 도태시킬 것이다.

AI 시대, 분단 세계관을 초월하는 통일교육

이제 통일교육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세련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장비들이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가 입력되고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접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문화적 감수성과 포용적 민족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적 관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의 관점에서는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나누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양질의 객관적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통적, 비전통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AI 기술은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AI 시대는 이렇듯 통일 세대들이 분단 세계관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인간관과 인간관계, 민족의식과 소속감들을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다. 우리 통일 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유로운 개인과 그런 개인들이 공감하는 협력의 공동체성을, 통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규모로 상상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새로운 휴머니즘과 통일에 대한 열망은 완성형이기보다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미학 속에 꽃피게 될 것이다.



정진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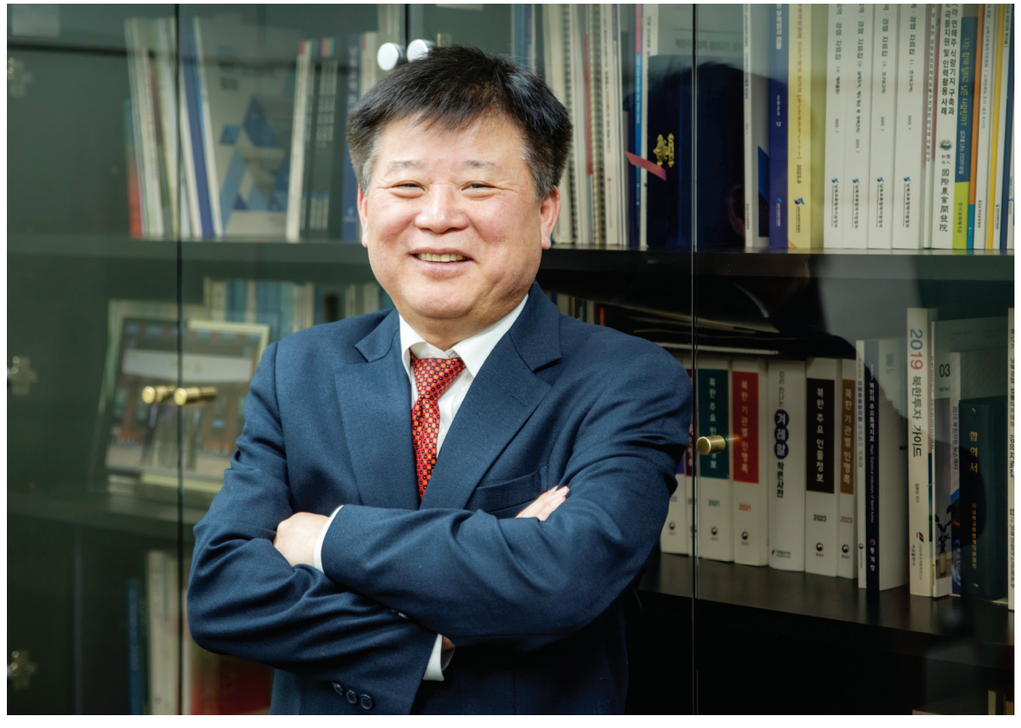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인류학 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종교와민족다양성연구원 전임연구원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사회통합연구분과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2015 Palgrave Macmillan), 『통합 그 후를 생각하다』(공저, 2021),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2021) 등이 있다.

| 겨레말 초대석 |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남북 교류 협력을 꿈꾸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아래 '협회')에서 정낙근 회장을 만났다. 그는 2023년 1월 9일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협회는 남북 관계 경색과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가 그간 쌓아온 역량과 함께 30년 넘게 북한 문제 연구와 관련 정책 활동을 펼쳐온 그의 역할이 한몫했다. 그에게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와 근황을 묻고 협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진행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정리 **홍서현**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과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와 근황이 궁금하다.

35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등에서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연구와 정책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해 협회 기관장을 맡게 됐다. 연구기관에 오래 몸담아 협회도 연구기관과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 협회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임을 새삼 깨달았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남북 관계 진통이 많았고 다난했다. 그야말로 협회는 '기사회생'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위에서 협회의 존재 필요성을 물을 때마다 늘 노심초사했고 기관장으로서 괴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1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19를 지나며 '뉴노멀(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협회를 포함해 우리 시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우리는 '미래' 또는 '미지의 세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래 예측은 경우에 따라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한다. 희망적 사유(wishful thinking)가 지배하는 분석은 과학성을 잃으며, 결국 비과학적 예측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남북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미래 예측은 섣불리 하지 않으려 한다. 공공기관인 협회가 새로운 통일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나 해결책을 '무책임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대전환의 시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작년 봄, 매체 인터뷰를 통해 협회가 남북 교류 협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년이 지난 지금 협회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 본다면?

보통 '남북 교류 협력'을 대할 때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은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교류 협력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제대로 잘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남북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 왔던 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오래 축적한 남북 교류 협력의 경험과 기반을 잘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통일 미래로 가기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간 관계로 공표한 상황에 맞대응한답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간 적대성이 심화할수록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목표를 더욱 강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한 협회만의 업무가 있는가.

최근 들어 남북 교류 협력 정보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협회는 분야별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의 남북 관계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포함해 남북 교류 협력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면서 온·오프라인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으나 꾸준히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들이 연구자와 통일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년 8월, 협회 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아래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신고센터의 목적은 교류 협력의 추진을 단속하고 막겠다는 게 아니다. 교류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미처 구축하지 못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매몰된 나머지 놓쳤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고센터의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 '단속'과 '구속'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 건수로 성과를 잡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심에 두고 각종 사고들을 예방하는 노력을 성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대북 제재와 관련된 활동을 들 수 있다. 남북 교류 관련 단체들이나 국민이 대북 제재에 관한 정보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협회는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상담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엔에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대신 해주기도 한다. 또 협회는 북한과 사업할 때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국내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 등등 주의 사항을 상담하고 일깨우기도 한다.

올해에도 통일의식 조사 결과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한 관심이 적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협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동시에 협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협회 여건상 국민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협회는 국회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우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당장 5월에 개원하는 새로운 국회에 협회를 소개하고 협회의 사업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협회의 역할과 사업 방향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통일에 관심이 적은 청년 세대들을 만나기 위해 아카데미, 청년 자문회의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남북이 통일을 함께 꿈꿔야 이뤄진다. 지금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듯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미래는 만드는 것'이란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이외 탈북민 자문단과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 컨설팅 자문단, 전략물자 자문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일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한 민간교류사업으로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며, 특히 직접적 소통 수단인 '언어'라는 콘텐츠를 가진 게 강점이다.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기본은 소통 수단인 언어가 있어야 한다.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언어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표준어 외에 '사투리'라는 지역 말을 존중해야 하고, 아울러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달라지는 남북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 공동 국어사전의 편찬은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회도 무척 답답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이 공동회의를 못하더라도 북한의 지역 말, 또 '장마당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소통 방법에 대해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협회와 함께 문화,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언어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북한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함께해 볼 수도 있겠다. 언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소식지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남북이 통일을 함께 꿈꿔야 이뤄진다. 지금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듯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미래는 만드는 것'이란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칫 미래의 꿈만 이야기하고 현실을 가꾸는 것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현 상황에 너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 모두 창의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물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글 · 사진 **강건모** 에세이스트

봄이 되어 새로 습관 하나를 들였다.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시를 읽는 것이다. 시란 본래 그러한 것인지 어스름 속에서 고적하니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경(詩境)에 동화되고 살굿빛 언어들에 물들게 된다.

"읽기는 쓰기다"라고 말한 게 마르그리트 뒤라스였던가. 그 말을 빌려 나도 말해 본다. 쓰기는 보기라고. 쓰는 동안 나는 내 안에 떠오른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 읽고 쓰고 보는 일은 순환하며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 문학 편집자로서 이십 년 가까이 '읽는 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인지도 모르겠다.

보통 글은 컴퓨터 자판이나 연필로 쓰지만 나에게는 필기구가 하나 더 있다. 카메라다. 이미지를 포착하는 카메라는 마음의 필기구가 되기에 제격이다.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이어질 힘을 얻은 듯 든든하다.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작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 특별한 의미를 점한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꿈틀하는 것이다. 그것과 내가 서로 닮아 있음을 발견하는 사이 시적인 것이 꽃눈을 틔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일은 한편 마음의 언어를 주워 시를 쓰는 일이기도 하다.



↑ 제주의 아침을 여는 첫 차. 05시 55분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한림체육관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왕복 운행한다.



↑ '벚꽃의 말들'. 봄은 바라보기 좋은 계절이어서 봄이다. 온통 볼 것 투성이여서 시력 또한 좋아진다. 잘 본다는 것이 잘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게 한다.



↑ 푸설푸설 내리는 흰 눈. 제주의 겨울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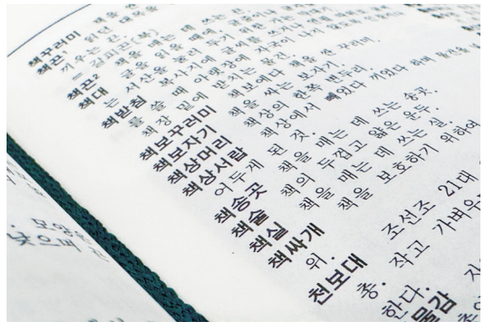


↑ 현무암 위에 점점이 쌓인 벚꽃들.

마당에 나와 보니 한 차례 비가 다녀간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잠결에 비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닌 것 사이로 많은 일이 있었다. 비가 그치자 별일 없던 시멘트 길 위에 작은 연못이 만들어졌고, 나무 한 그루가 그 속에 비쳐 자라고 있다. 그리고 며칠째 눈병으로 고생하던 길고양이의 눈이 나았다. 마을 골목길에는 벚꽃이 눈처럼 내려 있다. 빈집의 지붕 위에도, 항아리에도, 거미줄에도, 의자 위에도 하얗게 내려앉았다. 저 꽃잎들 뭉쳐 눈사람 하나 만들어 보았으면. 내가 까무룩 잠들어 있던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하다. 아직 공기가 차다. 낡고 해진 외투의 옷깃을 여며본다.

지난겨울 제주엔 눈이 자주 내렸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나는 푸설푸설 내리는 흰 눈 속을 검은 글자처럼 걷곤 했다. 원고 마감이 코앞인데 도무지 문장이 오지 않고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을 때였다.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 점점이 찍힌 여백이 유일한 쉼이자 위안이었다. 그러나 여백 속에 내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글은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글쓰기는 결국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의미 하나를 좇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책 만드는 일을 하며 더욱 몸에 배기도 했지만, 마음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을 펴 읽는 것은 내 오랜 습관이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포털 사이트의 웹 사전을 뒤적거리는 것도 좋으나, 종이로 만든 사전을 넘기는



↑ 사전의 종잇장을 넘길 때 나는 말들의 텃밭을 넘보는 사람이 된다. 폴짝폴짝 고랑을 넘나들며 그들의 좁다란 골목을 자꾸 할긋거리게 된다.



↑ 제주 '폭낭' 끝에 매달린 물방울. 물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두 작은 마음이 만나는 결정적 순간에만 존재하는.

느낌에 비할 수는 없다. 사전 속에는 감정과 생각, 동태와 형태, 사물의 이름 등을 일컫는 말들이 모여 있다.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찾듯 사전의 종잇장을 넘길 때 나는 말들의 텃밭을 넘보는 사람이 된다. 폴짝폴짝 고랑을 넘나들며 그들의 좁다란 골목을 자꾸 할긋거리게 된다. 어렴풋하고 퍽퍽했던 마음이 싱싱한 단어들과 눈을 맞추다 보면 언어의 이미지는 조금 더 명징해지고, 나도 나를 조금 더 알아챌 수 있다.

물론 볍씨 같은 단어들을 응시하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심심하고 지루하다. 마음이 바쁠 때는 무모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않고서는 내면에 이를 수 없다. 내 마음이 작은 것에 머무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그전보다 조금 더 커진다.

산책을 끝내고 마당에 들어서자 멀리 내다보이는 바다 쪽에서 감파른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귀항하는 어선들을 따라 해안가에 이른 물빛이 자연과 사물에 스민다. 작고 수수한 것들이 내 세계의 둘레임을 새삼 깨닫는다.

제줏말로 '폭낭'이라 부르는 팽나무 잔가지 끝에 물방울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다가가 들여다보니 물방울 속에 하늘이 들어 있다. 나무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다.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도 들릴 듯하다. 마당 풍경이 비친 것이지마는 매일 보는 그것 같지가 않다.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도 어릴 적에 같은 발견을 했다. 그는 다음의 시를 썼다. "빗방울에/풍경이 비치고 있다/물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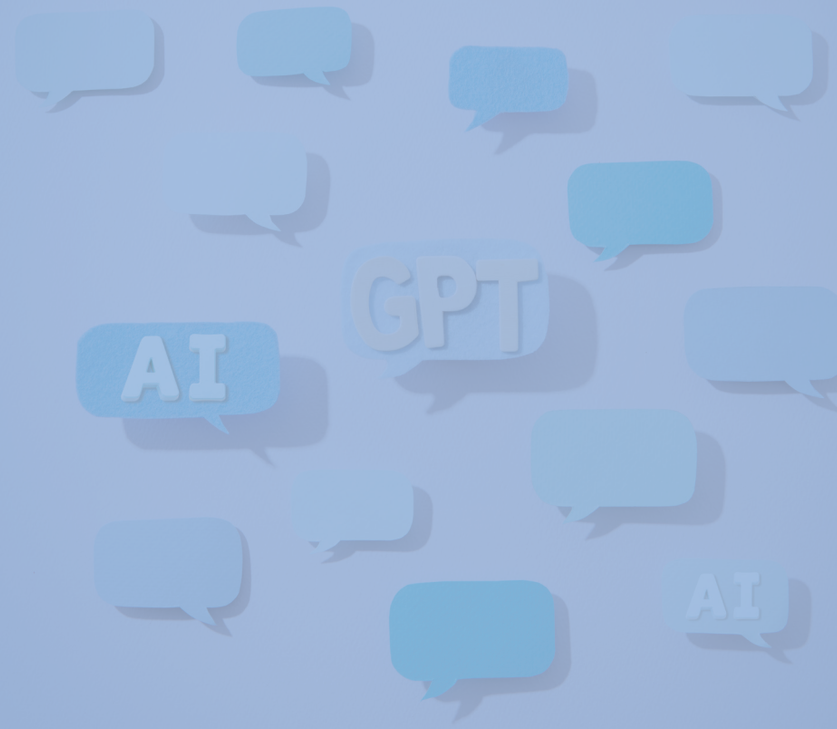
글도 사진도 삶도 모두 물방울 속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마음이 하는 일이다. 작은 마음에 볕이 들면, 비로소 나의 정신이 기지개를 켜는 아침이 온다.



강건모

에세이스트, 문학 편집자, 사진가, 뮤지션. 영상 제작자. 저서로 사진 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문집 『무탈한 하루』가 있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 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달라져도 모두 사전이다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사전을 생각하다'이다.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활용되면서 사전 업계와 학계에서도 '종이사전'에서 '검색 사전'의 시대로 넘어올 때처럼 다시, '사전의 위기'를 말하곤 한다. 대표적인 느린 매체인 사전도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사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사업회는 2005년부터 남북이 공동회의를 통해 함께 편찬해 온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으로 발간하는 동시에 2015년 북측 편찬위원회와 합의한 전자사전,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사전이란 무엇인가', '사전 편찬의 가치는 무엇인가'와 더불어 '지금, 이 시대의 사전 편찬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 우리에게 당면한 '사전의 위기'와 미래의 사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이번 기획특집 필진으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포함해 중국어 사전, 테툼어 사전 등을 편찬하고 연구하고 있는 도원영 교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최근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 시범 개통 사업을 담당한 조은 학예연구사(국립국어원), 그리고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대표를 지낸 장경식 대표(한국백과사전연구소) 등 세 분을 모셨다.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 사전 편찬 환경의 변화와 사전의 필요성,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도원영(「소소한 예측: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편찬자의 시선」)은 사전 편찬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사전 편찬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똘똘한 'AI 편찬 보조원'으로서 편찬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조은(「디지털 시대, 《근현대 국어사전》 시범 개통의 의미」)은 20세기 초 간행된 두 사전(《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큰사전》)을 웹 사전 형태로 서비스하는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다루며 인공지능 시대에 근현대 시대의 종이사전을 웹 사전으로 변환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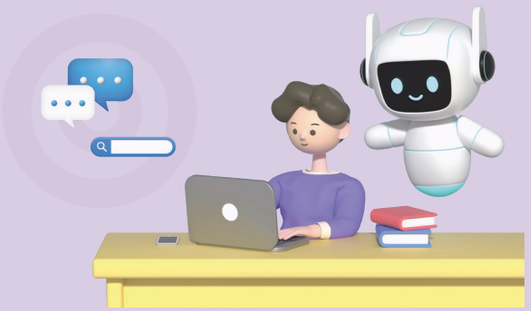
장경식(「《겨레말큰사전》은 미래의 사전이다」)은 실용적 사전이 아닌 '미래의 규범'이 적용된 사전으로서 《겨레말큰사전》의 독보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언급하며 《전자 겨레말큰사전》에도 그러한 담론이 잘 담기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레말큰사전》의 독특한 위상을 넘보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어제'의 말을 보전하고 '오늘'의 말을 수집하고, '내일'의 말을 모으는 작업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조은 학예연구사의 글처럼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과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전을 만드는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사전의 위기를 넘어 우리가 지금껏 갖지 못한 새로운 사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소소한 예측: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편찬자의 시선

글 **도원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死典' 된 국어사전…죽어가는 민족 지혜의 심장".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14년 세계일보 기획 기사의 헤드라인이다.[1] 당시 종이사전 편찬 산업의 쇠락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국어사전의 운명을 어둡게 전망하였다. 국가 기관 사전의 출간, 말뭉치 기반 사전의 도약, 포털의 사전 서비스는 사전 전문 출판사의 자리를 잠식해 갔다. 출판사 사전편찬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전문 편찬자들도 사전편찬계에서 사라졌다.

그렇다고 우리의 국어사전이 '死典'이 된 건 아니다. 오히려 언중은 웹과 앱을 통해 더 자주 더 풍부하게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집필자가 되어 웹 사전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관을 중심으로 사전 편찬 작업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사전이 기획되고 또 구축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세상을 지켜보자니, 과연 우리가 만들어 가꾸고 있는 사전이 다가올 미래에도 제 몫을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거대 언어 모델을 장착하고 강화 학습을 마친 생성형 AI가 우리 곁에 와 있다. 그간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정보자원과 그를 활용한 기술의 총화로 구현된 챗지피티(ChatGPT)가 별걸 다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전 편찬도 기계에 맡길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게 된다. 미래의 이용자는 출처가 있는 사전을 직접 검색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주는 답변을 보고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날에 대한 두려움과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온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의 근원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1) 특별기획취재팀(2014. 6. 30.), "'死典' 된 국어사전…죽어가는 민족 지혜의 심장",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629002603?OutUrl=naver(접속일: 2024. 4. 15.)

기계의 도움과 편찬자의 역할

사전을 만드는 일이 사람인 편찬자에서 기계인 컴퓨터로 옮겨 간다는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98년 유럽사전학회에서 그레펜슈테트가 언급한 바, 3000년에는 사전 편찬자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의 전망보다 훨씬 빨랐다. 2012년 유럽사전학회 원탁 토론에서는 "2020년에도 사전 편찬자가 남아 있을까?"를 주제로 다루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 편찬 작업이 머지않아 자동화 단계에 이를 것임을 내다보았다.

챗지피티 3.5와 4.0이 공개된 이후에는 실제 기계가 사전 편찬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23년 아시아사전학회(ASIALEX)에서 마이클 런델은 "사전 작성의 자동화, 거의 다 왔는가"라는 주제로 챗지피티의 편찬 능력을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표제어의 생성, 정의문 작성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지만, 언어 현실을 변조하거나 아예 왜곡된 정보를 내놓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오류나 부적절함, 부자연스러움은 곧 조정되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사람 편찬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구글의 제미니, 네이버의 클로바X와 같은 대화형 AI부터 일레븐랩스, 달리, 미드저니 등등 음성·이미지·동영상 생성 AI를 경험해 보니 이전에 형태소 분석기, 용례 검색기를 접하고 익히던 시절이 떠올랐다. 말뭉치 구축을 통한 사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우리는 이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산언어학이 성장하면서 사전 편찬 방법론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전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종이카드에 표제어에 대한 기술을 해 나가던 방식은 사전 검색기와 입력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언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가공하여 추출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와 용례 검색기가 탄생하였으며, 우리는 말뭉치에서 표제어를 추출하고 의미를 가다듬고 용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사전이 바로 1998년에 완성된 《연세 한국어사전》, 2009년에 발간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이후 《겨레말큰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수어-한국어사전》 편찬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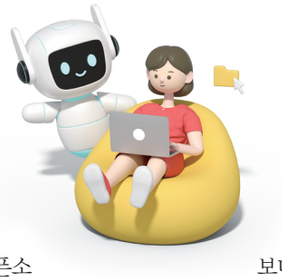
포털 사전과 오픈사전의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전의 유통과 소비 등 사전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어사전 최초로 《연세 한국어사전》이 2000년에 드림위즈를 통해 누리꾼에게 공개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2008년에 개정판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국어사전 활용의 길을 활짝 열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도 2011년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런 전개 과정은 자연스럽게 사전을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책상 위에 놓고 종이사전을 펼쳐보던 시절을 지나 전자사전을 들고 다니며 외국어 학습을 했던 시절도 흘러갔고 유료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사전을 검색하던 시절도 끝이 났다. 우리 국민은 기관 홈페이지와 포털의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전을 무료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사전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반면 이용자의 사전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사전에 대한 요청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 반증이 바로 오픈사전, 오픈백과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

> 가까운 미래가 눈에 보인다면 그에 맞설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매우 많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전들이 상당하다.



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일반인과 대중도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이는 미디어위키, 도쿠위키, 오픈사전PRO 등과 같은 오픈소스 편집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능해졌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는 표제어에 대한 백과 정보를 싣고 있으며 정보량과 출처 등 어마어마한 양의 레퍼런스를 자랑한다. 집필자는 비공개이며 누구든 편집에 관여할 수 있다. 네이버 오픈사전PRO의 경우 집필자가 사전의 주제와 구조를 직접 구성하고 제작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독자의 댓글과 응원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오픈사전PRO에는 6,100여 개의 사전이 서비스 중이다. 대부분은 일반인 집필자가 직접 만든 사전이다. 《우리말샘》은 국민의 참여로 총 130만 항목을 넘어섰다. 명실공히 사전 플랫폼이 우리 모두의 글쓰기 공간이 되었다.

아직, 사전이 더 필요하다

웹 시대의 사전은 이미 여러 경쟁자와 경합해 왔다. 한때는 포털의 검색창이 가장 강력한 맞수였다. 그러나 끝도 없이 나열되는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이 길고 소모적인 데에 반해 사전은 간단명료한 구조적·내용적 특성 덕분에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외국어의 경우 사전을 검색하는 것보다 번역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때로는 더 정확하다. 지금은 검색형 AI가 사전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여러 사전을 참고한 결과를 답변에 반영하고 있어 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전을 계속 깁고 다듬어야 할지, 새로운 사전을 기획하여 편찬 과정으로 돌입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망설여진다. 사전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포털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유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전 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요사이 일부 백과사전과 외국어사전의 웹 서비스가 잇달아 종료되고 있어, 사전 콘텐츠 서비스의 앞날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구축한 무료 콘텐츠와 일반인이 작성한 오픈사전을 중심으로 사전 서비스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사전 콘텐츠 다양화 시대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가까운 미래가 눈에 보인다면 그에 맞설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매우 많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전들이 상당하다. 예를 들자면 쓸 만한 표현용 사전을 웹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은 궁금한 단어나 특정 정보에 대해 표제어를 중심으로 찾게 되어 있는 이해용 사전이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상황에 딱 맞는 어휘를 추천해 주는 사전은 태부족한 상태이다. 좀 더 유려한 표현, 재미난 표현, 전문적인 표현, 최신 표현 등등을 정확히 알려 주는 사전. 챗지피티 4.0과 네이버 큐(Cue:)에게 묻고 또 물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편찬자, 무엇을 할 것인가

편찬자가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언어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 여타의 어휘와 복잡하게 얽힌 의미의 망을 가닥가닥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성,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성, 자신의 언어로 명징하게 기술할 수 있는 표현력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 《우리말 어감사전》(2021)은 우리말에 담긴 언중의 심오한 의식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내었다. 편찬자가 언어라는 넓은 바다를 때로는 편안하게 유영하면서 때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온몸으로 느끼며 건져 올린 보물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고성능 AI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똘똘해질 AI를 사전 편찬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플랫폼을 설계할 때 최신의 ICT를 적용하자는 말이다. 이용자를 위해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 간 연결뿐만 아니라 비사전과의 융합도 가능해져야 한다.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편찬된 사전 콘텐츠는 디지털 아카이브 외에도 유튜브, 온라인 기사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접속된다. 또한 시각화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다채로운 정보를 가시적으로 펼쳐 보인다. 사전이 반드시 고전적인 형식과 구조를 띨 필요가 없다. 기술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 다만, 사전 편찬 시스템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편찬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사전 편찬 시스템은 사전 편집기, 말뭉치 검색기, 통합사전 검색기, 데이터 관리기 등이 서로 연동되어 움직인다. 이들은 국어사전과 국어사전학의 발전을 이끈 토대이자 동력이었다. 하지만 집필과 교열 과정에서 편찬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일일이 확인한 뒤 선별하고 입력해야 한다. 작업 수월성을 위한 기능이 보강되고 있지만 아직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클릭과 저장을 반복해야 하나의 표제어를 완성할 수 있다. 똘똘한 AI 편찬 보조원에게 맡길 일들을 늘려 가야 할 것이다.

사전을 만드는 모두에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편찬자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그런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사전 편집기를 들여다본다.



도원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전학센터를 맡고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중한대사전》, 《한중사전》, 《고려대한한중사전》, 《한국어-테툼어 사전》 등의 편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근현대 국어사전》 시범 개통의 의미

글 **조은**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담는다. 새로 만들어진 말이나 미처 사전에 오르지 못한 말을 새롭게 사전에 올릴 때는 물론이고, 이미 등재된 말도 그 의미가 달라졌다면 오늘날의 쓰임을 우선 고려하여 사전에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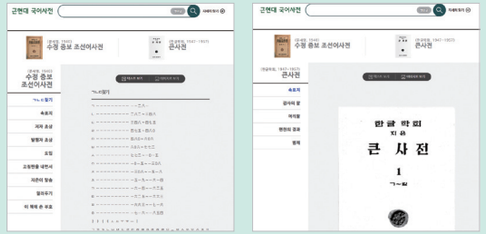
어휘의 쓰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한 어휘의 지금, 현재는 역사성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어휘의 과거를 사전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사전 편찬자에게 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사전을 전문적으로 편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용자들 역시 과거와 현재의 쓰임 사이에서 어떤 것이 국어사전에서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줄다리기하는 듯하다. 국립국어원에는 사전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가 빗발치는데 사전 정보가 지금의 쓰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 원래 쓰인 말의 뜻은 이러한데 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바뀐 의미를 사전에 담아서 잘못된 쓰임을 확산시키느냐는 민원이 공존한다는 점이 그렇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하지만 이용자가 어떤 마음으로 국어사전에서 '원래 쓰인 말'을 기대한 것인지는 공감할 수 있다. 어쩌면 국립국어원《근현대 국어사전》(https://opendict.korean.go.kr/modern/main)이 이 양면의 갈증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2024년 2월, 국립국어원에서는《수정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 약 9만 5천 항목)》과《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 약 14만 2천 항목)》을 묶어《근현대 국어사전》을 시범 개통하였다.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과《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 소개 화면.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평가되는《조선어사전(문세영, 1938)》을 깁고 더한 것으로 출간 당시 큰 호응을 얻어 널리 보급되었던 사전이다.《큰사전》은 미완의 국어사전인《말모이》에서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의 염원이 비로소 결실을 거둔 최초의 국어 '대사전'으로서, 이후에 간행된 모든 국어사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 아마 이 사전이 없었다면《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기간이《큰사전》의 편찬 기간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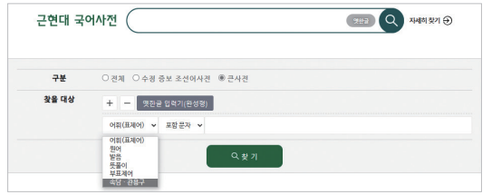
《근현대 국어사전》은 주로 20세기 초에 간행된 사전



↑ 국립국어원《근현대 국어사전》'검색' 사례.

들로 당시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의 국어사전에 어떤 말이 표제어로 수록되고 어떻게 풀이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의 쓰임을《표준국어대사전》에 기대어 살펴본다면 과거의 쓰임은《근현대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근현대 시기 우리말과 국어사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전은 편찬자, 간행 시기가 다른 만큼 사전의 구조도 다르다. 그래서 두 사전을 하나의 웹 사전으로 구현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근현대 국어사전》은 종이사전을 웹 사전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가 전혀 다른 두 사전이 하나의 사전처럼 오해되어서도 안 되고 '편찬자의 의도'를, '원본 그대로'를 충실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개별 사전에서 채택한 품사 체계, 명칭 등을 서로 다른 것대로 보여 주기로 하였고, 쪽별로 스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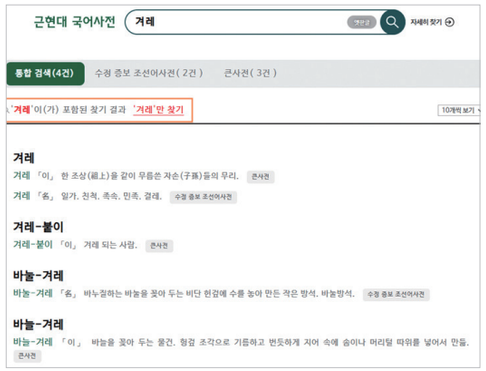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근현대 국어사전》'자세히 찾기' 화면.

'원문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여 원본 자료의 모습과 정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사전 내용을 한데 모아 검색('통합 검색')하되, 사전별로 차별화된 검색('개별 검색')도 가능하게 하였다. '통합 검색'은 두 사전에서 표제어 표기가 동일한 '동형 표제어'를 중심으로 장음 부호, 붙임표 등 한글 외의 부호까지 모두 같게 표시된 표제어를 함께 묶어 보여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별 검색'에서는 두 사전 중 이용자가 원하는 사전만 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큰사전》은 특정 표제어에서 하위 정보로 '속담·관용구'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항목을 따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종이사전의 일러두기에 제시된 길잡이를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동시에《근현대 국어사전》을 위한 일러두기를 따로 두어 '따로 또 같이'의 유의미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종이사전은 내가 원하는 말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의 앞뒤에 어떤 다른 말이 실려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말과 그 의미를 더불어 얻기도 한다. 그런데 웹 사전에서는 정확한 검색어(어휘)를 스스로 입력하지 않는 한 덤으로 얻는 건 없다. 웹 사전 검색 서비스의 기본이자 중요한 방침은 '완전 일치 검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옛날 사전에는 지금 사전에 비하면 수록되지 않은 표제어도 많고, 어떤 표제어가 있을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 '포함 검색, 원문 보기, 내려받기' 사례.

표기법도 지금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일치 검색'만으로는 원하는 표제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근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종이사전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검색어의 주변 단어들까지 볼 수 있는 '포함 검색'을 검색 서비스의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즉, 내가 찾는 말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어휘들을 함께 보여 주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전 정보를 문서(엑셀) 형식으로 제공하여 전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근현대 국어사전》 이용자는 두 사전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원문 이미지도 내려받거나 살펴볼 수 있어서 일반 사전 이용자나 연구자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디지털 사전으로의 전환은 언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기대를 실현해 주었다. 사전은 '느린 매체'의 대명사로서, 큰 규모의 종이사전을 편찬하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던 점을 보면 디지털 환경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전 편찬 환경이 되어 주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집필과 수정의 용이성 이면에는 기록과 보전의 한계가 공존한다.
종이사전은 간행 연도나 증보, 개정 등의 판본 구분으로 '그때'의 언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웹 사전은 내용을 고쳐서 저장해 버리면 새 정보가 이전의 기록을 덮어쓰게 된다. 어제까지는 그 어휘에 대한 과거의 쓰임을 담고 있다가도 오늘, 달라진 지금의 쓰임으로 내용이 교체되면 '그때 그날'의 쓰임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예전 국어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일부러 큰 도서관에 가서 옛날의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과거의 정보를 들추어 볼 기회도 없었다.
이번에 개통한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은 종이사전을 디지털화한 것이므로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자료를 살펴보는 데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사전이 다소간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잊힌 우리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근현대 국어사전》에 과거에 간행된 주요 국어사전을 더하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앞서 소개한 두 사전인 것이다.

4.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랜 과거의 국어사전을 전산화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그때의 어휘와 그 어휘를 모은 사전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방증한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사전의 발전 덕분에 이런 기회를 꾀할 수도 있었다. 이번 작업은 사실상 과거의 종이사전을 웹 사전으로 온전히 옮기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간행된 지 오래된 과거의 사전에도 디지털 사전의 이점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내용과 구조의 측면에서는 종이사전의 모습을 갖추되, '검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사전 정보를 추출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종이사전에서는 특정 어휘를 선별하는 작업이 어려웠는데 디지털 사전으로 만드니 한 번의 손쉬운 검색만으로 어휘 추출이 가능해졌다. 두 사전을 합하면 23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어휘를 다양한 조건에 따라 목록화하여 따로 모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가공할 수도 있다. 과거의 우리말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시의 언어에 대한 더욱 정밀한 관찰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번 작업은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대규모 언어 자원을 구축한 것이기도 하다. 디지털 사전으로의 변환 작업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던 본질적인 사전의 기능을 확장하여 대규모의, 다양한 종류의 언어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근현대 국어사전》은 수록 자료의 특성과 서비스 목적상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를 해 나갈 것도 아니고, 사전 편찬의 대중화를 꾀한 《우리말샘》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사전으로 운영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느 웹 사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는 얼마든지 이 자료를 해체하고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국어원은 국가 사전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였고 제한과 제약이 많았던 종이사전을 디지털 사전으로 탈바꿈하여 자료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5.

지금은 '시범 개통' 상태인 《근현대 국어사전》은 향후 몇 년 사이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내용이나 형식에서 모두 다소 거칠게 구현된 부분을 면밀하게 다듬고 검색 결과 배열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지금보다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령, 검색 편의를 위해 몇몇 항목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단순히 표기 형태를 기준으로 묶은 어휘를 유의어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정이 되면 좋겠다.
이 두 개의 국어사전이 전산화되고 웹 사전으로 구현되기까지는 함께 협력한 ㈜네이버, 한글학회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온라인 공간에 마련하는 일은 단지 국립국어원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을 활발히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고, 더 나은 국어사전을 위한 요구가 있다면 국립국어원에서는 여력이 닿는 데까지 '어제'의 우리말과 국어사전을 보전하고, '오늘'의 우리말을 수집하고, 새로이 생기고 변화할 '내일'의 우리말을 모으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꿈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은
국립국어원에서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다. 어문연구과 사전팀에서 2022년부터 사전 업무를 담당하며 《근현대 국어사전》 개통 업무를 맡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미래의 사전이다

글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겨레말큰사전》, 그 고유한 위상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어판을 편찬하던 시절, 한국브리태니커회사의 편집개발실에 북한에서 발행한 백과사전의 영인본이 있었다. 북한 정보 확인용 참고 자료였다. 북한 전문가들이 집필한 원고 내용을 교차 대조할 때마다 그 백과사전을 펼쳐 보았는데, 적응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항목의 배열 순서였다. 한국과 달리 북한의 백과사전에서는 겹자음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시작하는 항목이 'ㅎ'의 다음에 오고, 'ㅇ'은 가장 뒤에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했던 자모순에 따라 항목을 찾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았다. 같은 언어이지만,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따라 내용뿐 아니라 언어 규범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느 한쪽의 사용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십여 년이 지나 남북이 합의하여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남북이 함께 사전을 편찬할 때 '이런 언어 규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공동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남북 공동편찬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에 남과 북의 규범을 절충한 자모순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ㅇ'은 남과 같이 'ㅅ'과 'ㅈ' 사이에 오게 하되, 겹자음인 'ㄲ, ㄸ, ㅃ, ㅆ, ㅉ'은 북과 같이 'ㅎ'의 다음에 넣는 순서였다. 이 새로운 자모순의 채택은 아마도 《겨레말큰사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며, 이 특별한 사전이 이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났다. 2014년으로 예정했던 이 사업의 종료는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면서 계속 미루어졌고,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두음 법칙, 사이시옷 표기와 같은 규범의 합의를 남겨둔 채 미완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에 정보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한국의 프로기사 이세돌에게 4승 1패의 전적으로 승리를 기록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미래학의 영역이었던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말, 오픈에이아이(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어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에 열광했다. 2023년에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2024년에는 동영상마저도 명령어에 따라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이 공개되었다. 명령어만 주어지면 대화뿐 아니라 문학 작품이나 논문도 집필하고 이미지와 동영상까지 만들어 내는 이 놀라운 생성형 인공지능 발달의 추세에 편승하여, 어떤 미래학자들은 의사와 법률가, 기자와 소설가, 광고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의 소멸까지 예측했다. 시나브로 검색이 사전을 삼키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신하는 지금, 《겨레말큰사전》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겨레말큰사전》과 종이사전의 의미

《겨레말큰사전》은 대단히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사전이다. 반만년의 역사라는 공통점과 분단된 이후 팔십 년 가까이 이어진 현대사의 단절이 이 사전의 바탕에 깔려 있다. 남북은 이 사전의 편찬에 합의하며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라는 지상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 규범에서 나오는 차이를 극복한 공동 편찬 요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 사전의 가치가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견인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현재 이 사전의 물성이 가져야 할 고유의 영역을 잘 드러낸다.

수록 올림말이 30만여 개에 이르는 《겨레말큰사전》에 적용되는 규범은 남북의 현행 어문 규범을 토대로 하여 남북이 학술적 논의를 거쳐 보완 작성한 통일 지향적인 단일 언어 규범이다. 이 규범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단일 규범이지만, 단계적인 수정, 보충, 완성의 과정을 거쳐 민족어 통일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잠정적인 '통일 규범' 초안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이 규범은 남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이는 《겨레말큰사전》이 현실적으로 당대의 언중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참고할 실용적인 사전이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담론을 전제로 한 미래의 규범이 적용된 사전임을 의미한다.

모든 사전은 담론의 구성체이다. 인쇄본 시대의 사전은 모두 특정 분야에 대한 편찬 주체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된 담론의 구성체였으며, '종이책'이라는 물성을 통해 그 담론의 총체와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편찬 주체의 담론은 올림말의 선정과 배열순서 같은 거시 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의 뜻풀이말과 같은 미시 구조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유재원의 《우리말 역순사전》은 올림말의 배열순서라는 거시 구조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예일 것이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국어사전 《신메이카이 국어사전》은 편찬자의 담론에 따른 뜻풀이말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전의 편집 주간이었던 야마다 타다오는 '사전은 문명 비판'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동물원] 생태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한편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잡아온 많은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과 물고기 등에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것을 강요하며 죽을 때까지 기르는 인간 중심의 시설"과 같은 뜻풀이말을 넣었던 것이다.

요컨대, 통일 담론을 전제로 이중언어 사전과 단일

언어 사전의 과도적 성격을 띠고 편찬되는 《겨레말큰사전》은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서 가상의 언어 규범이 구현되었을 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 이런 종류의 사전은 그 자체가 물성을 가진 독립적인 실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북의 같은 올림말의 의미 차이('낙지'와 '오징어'), 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올림말('한복'과 '조선옷') 사례의 제시에 더하여, 미래의 언어 규범 가운데 하나인 낯선 배열 순서까지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언중이 서로의 언어생활을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도구로서 이 사전이 지향하는 담론 구조 전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은 사용자에게 통일을 전제로 한 '겨레말' 담론의 구성체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그 물성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이 종이사전으로 편찬되어야 이 사전이 지향하는 담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현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2000년 초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전은 일반적인 도서보다 이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전의 많은 정보를 쉽게 담을 수 있는 매체로 당시 과도적 매체였던 시디롬이 채택되었고, 인터넷 발달에 따라 종이사전의 물성은 일반 도서와는 달리 대중적 효용을 급격하게 잃었다.

하드웨어는 그 속에 담기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휴먼웨어[1]까지 상상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을 흔히 '다중매체 시대'라고 한다. 다중매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전달 방식의 다변화, 중층화에 따라 사용자 환경이 대단히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종이사전에 집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으로 궁금증을 해결한다. 종이사전이 물성을 잃고 디지털로 전환되어 하나의 검색창 속에 융해되는 순간, 개별적인 편찬 주체에 의해 독자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미시·거시 구조로 완결되었던 지식의 세계, 즉 담론의 완성된 구성체를 제공했던 사전들은 '검색'이 제공하는 결과 속에서 구조를 잃고 분자 단위로 해체되어 '데이터'로 통합되었다.

디지털 시대는 인쇄본 사전들이 갖고 있던 각각의 정체성을 휘발시켰다. 물론 '검색'에서도 항목의 앞이나 끝에 출전을 밝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검색 결과들에 붙은 출전의 개별성을 유의미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전자사전 형태에서 앞에서 말한 《겨레말큰사전》의 담론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오히려, 일반적인 언중들이 표준으로 삼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다른 올림말이나 풀이가 사용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미래의 사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사전을 기획할 때에는 《겨레말큰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되, 독립적인 사이트에서 이 사전의 담론과 지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이사전에서 볼 수 있는, 현행 남북의 언어 규범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사전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모 배열순서 등도 이 전자사전에서는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용자 능력, 권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강조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겨레말큰사전》과 인공지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사실 디지털 시대의 사전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이루어져 왔다. '사전'의 정의조차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고전적인 개념 대신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자가 최적의 언어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하나"(테오 호펜버그[2])라는 사용자 관점의 개념까지 새롭게 제시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궁극적인 상징이자, 실존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개념적 가능성과 미래를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인공지능은 사실, 단순하게 말해 '자의식'을 갖지 않은 인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에서 질문의 의도에 부합한 정보만을 수집해 이를 마치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문장이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가공하여 응답한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제공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인간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인공지능은 자기 성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수집한 데이터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테오 호펜버그의 정의에 따른다면, 이론적으로 보아 인공지능은 충분히 사전의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흔히 사전학에서 말하는 '말뭉치'에 해당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것이며, 그 데이터 가운데 계량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를 풀이말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더 오류가 적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에 더 풍부하고 더 잘 편찬된 사전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30만여 개는 분명 인공지능의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겨레말큰사전》의 독특한 위상을 넘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겨레말큰사전》은 당대 언중의 사전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자를 위한 사전이요, 편찬 주체의 담론이 편찬자에 의해 거시 구조에서 미시 구조까지 미세하고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반영된 사전이다. 우리가 꿈꾸는 남북통일을 겨냥한 미래의 언어 규범이 적용된 언어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개념과 의의를 당대의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을 뿐인 인공지능은 끝까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현행 말뭉치나 국어사전 데이터와 다른 올림말이나 뜻풀이말의 관계, 그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미묘한 차이까지는 끝내 설명해 줄 수 없을 것이다.

2) 프랑스의 인공지능 기반 사전 및 번역 회사인 레베르소(Reverso) 대표.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한국브리태니커회사에서 편집책임자와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사전학회 창립 회원으로 출판이사를 맡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대한 개설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썼으며, 「백과사전의 독자」,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한국 현대 백과사전의 담론적 성격에 대한 시론」, 「디지털 인문학 시대 백과사전의 역할」 등의 논문을 썼다. 199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삶은 달걀」, 「바퀴」, 「너의 기억에 담긴 나를」 등을 발표했다.

‘가루비누’와 ‘하이타이’, 언어의 분단은 사랑으로 통한다

글 **최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원

봄은 꽃의 계절이라 했던가. 휘늘어진 가지마다 만발하게 피어난 개나리꽃, 벚꽃 등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손잡고 걷고 있는 젊은이 얼굴마다 웃음이 피어난다. 중년의 삶에도 자연의 봄기운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겨울에 덮었던 이불도 교체하고 구석구석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해 새로운 기분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었다.

어느 주말, 열려 있는 창가로 살랑살랑 봄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그 기분 그대로 화장실 대청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나는 신나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자기야, 가루비누 좀 가져다 줘요.”

바께쯔[1]에 조금 넣은 락스를 희석하려 수돗물을 받고, 가루비누를 넣으려고 화장실을 둘러보니 가루비누 봉지가 비어 있었다.

“뭐라고?”

“웃방[2]에 가루비누 지함[3] 있거든. 거기서 한 봉지 가져다줘요.”

“가루비누가 뭐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되받아 소리쳤다.

“가루비누가 뭐라니? 세탁에 쓰는 거지.”

짜증이 묻어난 억양이 어느새 오르고 있었다. 당연한 것을 왜 모르냐는 말투였다.

“……”

남편의 두 눈이 황소처럼 커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눈빛이다. 분명 서로가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한쪽이 알아듣지 못한다. 낯설고 어색한 눈빛들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혹시 ‘하이타이’ 말하는 거야?”

눈치 빠른 남편이 먼저 말했다.

“하이타이? 그게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 쓰려는 거 아니야?”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답했다.

1)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영어 ‘bucket’에서 온 외래어 ‘바께쯔’와 ‘물바께쯔’가 규범어로 수록돼 있으며 ‘바께쯔’는 ‘물이나 그밖의 물건을 담아 들고다니게 된 그릇의 한가지. 둥글게 생겼는데 우는 아래보다 좀 넓고 손잡이가 달려있다. 흔히 놈, 양철, 비닐같은것으로 만든다’라고 풀이돼 있다.
2) ‘윗방’의 북한식 표기.
3) 지함(紙函)은 주름판지나 두꺼운 판지를 가지고 만든 종이함이다.

“맞아요. 그래서 가루비누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거죠.”

남편이 돌아서서 웃방으로 가더니 가루비누 봉지를 손에 들고 왔다.

“이거 맞지? 하이타이!”

“이게 가루비누지, 하이타이라고요?”

“남에서는 이런 가루 세제를 하이타이라고 해.”

하이타이, 하이타이……. 속으로 몇 번 곱씹어 보아도 ‘비누’보다 ‘넥타이’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였다. 남북이 사용하는 생활용 제품명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순간 영토의 분단이 언어의 분단으로, 그리고 그 언어의 분단이 문화의 분단으로, 또는 문화의 분단이 다시 언어의 분단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루비누’는 북에서 ‘분말비누(粉末--)’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다. 물론 남에도 ‘가루비누’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록돼 있으며 ‘①가루 상태로 만든 비누 ②‘합성 세제’를 달리 이르는 말’로 풀이돼 있다. 다만 남에서는 북에 비해 그 쓰임이 현저하게 적은 것 같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제품명이 필수적이므로 외래어로 된 제품명들의 수가 경제 발전에 비례하고 있는 듯하다. 남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 문화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북에서도 ‘있어 보이는’ 부와 문명을 동시에 불러온 제품 중의 하나가 가루비누이다. 가루비누 제품이 북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국가공급체계가 무너진 틈새 속에 중국에서 수입된 비누 제품 중 북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가루비누였다. 국가가 생필품을 공급하던 시기에 비누 제품은 ‘덩어리(고체)’ 빨래비누와 세수비누[4]가 전부였고 그마저 부족하였으니 포장된 비누는 사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된 가루비누는 파란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가루비누로 옷을 빨래하면 은은한 향기가 후각으로 느껴져 이색적이었다.

4) ‘빨랫비누’, ‘세숫비누’의 북한식 표기.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남북 관계도 ‘가루비누’와 ‘하이타이’처럼 하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음에도 언어의 이면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의 분단을 생성한 건 아닐까? 통일에 금을 긋는 불화를 자처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건 아닌지 남에 정착하는 삶의 순간마다 언어의 다름으로 되돌아보곤 한다.”

가장 먼저 도시 여성들이 가루비누를 사용했다. 가루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칼이 하늘하늘 바람에 날려 기분이 무척 상쾌했던 기억이 난다. 그전까지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푸석해진 머리칼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식초를 물에 조금 떨어뜨려 머리칼을 헹구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장마당이 생기더니 식초보다 더 좋은 ‘가루비누’ 문명이 다가온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도시 여성은 물론 농촌 여성들도 현금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자 가루비누 소비가 대중화되었다. 세탁물 구석구석 덩어리 비누로 비비고 또 비비며 손빨래를 해야 했던 여성들의 중노동이 가루비누 덕분에 경노동으로 변화했다. 덩어리 비누로 세탁을 하자면 손으로 힘껏 진때 묻은 옷을 비벼야 하므로 손힘이 필요하다. 반면 함지에 가득 부은 따뜻한 물에 가루비누를 적당히 풀어 넣고 세탁물을 담궈 진때가 불어난 후 두발로 꾹꾹 밟기만 하면 세탁의 절반이 해결된다. 하얀 블라우스도 거품이 올라오는 가루비누 물에 살랑살랑 비비면 깨끗이 세탁된다.

300그램 단위로 포장된 중국산 가루비누 한 봉지 가격이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쌀 1킬로 가격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무역분권화에 따라 지방마다 자리한 무역회사들의 생필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루비누 가격은 옥수수 1킬로 가격으로 내려갔다. 장마당 장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직업적인 혁명가로 북이 내세우는 여성 교사들은 장사 활동이 제한되므로 가루비누 구매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에서는 남의 스승의날과 유사한 교육절(9. 5.)이 다가오면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는 문화가 있는데, 속이 깊은 학부모는 가루비누 한 봉지를 자녀의 담임선생님께 선물하기도 했다.

김정은시대 이후 북한 시장에는 담배와 식품 등 경공업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가루비누 역시 국산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여성들 속에서 인기가 높았던 가루비누 성능보다 더 좋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국산 ‘물비누’도 부각되고 있다. 인상적인 변화는 가루비누와 물비누를 생산하는 주체가 증가하며 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광고가 등장한 것이다. 김일성시대에 국가계획으로 생산되던 비누에는 ‘비누’라는 글자가 전부였지만, 최근 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루비누 포장지와 물비누 용기에는 ‘한번만에 진때 제거’, ‘척 담그면 척 세척되는’, ‘묵은때도 말끔히’ 등 세탁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가 제품별로 다양하게 새겨져 있다. 한편, 가루비누 포장지에 ‘녀성들의 벗’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여전히 빨래를 비롯한 가사노동이 여성의 역할로 정해져 있는 문화를 실감하기도 한다.

비누 제품 하나로 남북의 역사가 파도처럼 밀려와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어쩌면 남북 관계도 ‘가루비누’와 ‘하이타이’처럼 하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음에도 언어의 이면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의 분단을 생성한 건 아닐까? 통일에 금을 긋는 불화를 자처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건 아닌지 남에 정착하는 삶의 순간마다 언어의 다름으로 되돌아보곤 한다.

열린 창가로 연분홍 벚꽃 잎이 사뿐 날아들어 중년의 부부 사이로 내려앉았다.

“자기야, 하이타이 좀 가져다줄래?”

북한 출신 아내가 남한말로 말했다.

“아, 가루비누!”

남한 출신 남편도 북한말로 뜨겁게 화답했다. 언어의 다름을 서로가 이해하니 사랑으로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 안타깝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봄날의 언덕에서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최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원. 북한 평안남도 출신으로 2011년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기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3년 롯데장학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북한연구지원사업 박사급 부문에서 「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업 활성화 실태 분석」으로 우수논문 1등상을 수상했으며, 장편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 유공자’에 선정돼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쳇말

글 **이형주**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時體

역사적으로 세대 차이랄 것이 없었던 시대는 없다고 한다. 요즘도 기성세대는 '라떼', 그 아래 세대는 '엠제트(MZ)'라 부르고 서로를 구별한다.[1] 엠제트든 라떼든 신세대든 쉰세대든 세대를 가르는 말은 언제나 유행처럼 돌았다. 이렇게 한때 유행처럼 도는 말들을 '시쳇말'이라고 한다.

이 말에 포함된 '시체'가 "죽은 사람의 몸"을 연상하게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풍습, 유행을 따르거나 지식 따위를 받는 일"이라는 뜻의 한자어 '시체(時體)'와 관련된 말이다.[2] 조사 '로'와 함께 쓰여 '시쳇말로'와 같은 꼴로 나타나며 그 앞의 표현이나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풀고자 할 때 쓴다.

여러 사전에서 '시쳇말'은 대부분 비슷하게 풀이되고 있다.[3] 북의 사전인 《현대조선말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서도 대동소이하다.[4]

1) 'MZ'를 '엠제트'로 부르느냐, '엠지'로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세대가 나뉜다고는 하나, 여기서는 규범에 맞게 '엠제트'로 부르고 적었다.
2) 지금은 자주 쓰지 않지만 '시체(時體)'는 '시톄' 꼴로 쓰인 예를 이미 17세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예) 기ᄅᆞ마ᄂᆞᆫ 이 눈ᄌᆞ티 흰 鹿角邊兒에 시톄로 ᄒᆞᆫ 黑斜皮 ᄡᅳᆫ 기ᄅᆞ마 가지오,『박통사언해 상:28』(1677)
[현대어 역] 길마[鞍裝]는 눈같이 흰 사슴뿔로 테두리를 했고 길맛가지는 요즘식의 검은 담비가죽으로 쌌다.
(《우리말샘》 번역 인용)
3)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큰사전》(1957)에는 '시쳇말'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4) 북녘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쳇말'을 '시체말'로 적는다.

■ **사전별 '시쳇말(시체말)'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남	《표준국어대사전》	(주로 '시쳇말로' 꼴로 쓰여)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주로 '시쳇말로'의 꼴로 쓰여)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말.
	《동아새국어사전》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말. 시대의 유행어.(주로, '시쳇말로'의 꼴로 쓰임)
북	《현대조선말사전》	《그 시기에 새로 류행하는 말》을 이르던 말.
	《조선말대사전》	그 시대에 류행되는 말.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라는 풀이에 걸맞게, 용례 중에도 당시에 널리 퍼지고 있거나 쓰임이 증가하게 된 표현들이 '시쳇말' 뒤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 도입된 개념이나 사물, 사상 등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있던 말을 비유 등으로 사용하여 신선하다거나 인상 깊다는 느낌을 주어 유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 유행하는 말은 반드시 단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나 문장과 같이 더 긴 표현도 올 수 있는 듯하다.

⊙ 용례

- 며칠 전에 의뢰받은 물건이 **시쳇말**로 엽기라서 그래. 의뢰인 나이도 심란하지만 맡은 물건의 나이도 만만찮거든.《유애숙: 노루잠에 개꿈》(2005)

- **시쳇말**로 싸움 짱이라는 아이였다. 자기 말로는 2년을 꿇어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얼핏 봐도 거뭇한 수염에 늙수그레한 외모가 도저히 우리 또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이였다.《천명관: 나의 삼촌 브루스 리》(2012)

- 만일 그렇지 않다면 권가와 서가와의 결합이랄까 혹은 **시쳇말**로 콤비랄까, 어쨌든 두 사람의 협력은 아예 이루어지지부터 않았다.《김남천: 이리》(1939)
- 일이 이 정도의 건강을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그렇고 네 기분은 어떠냐? **시쳇말**로 쇼크 받지 않았나 모르겠다.《박완서: 오만과 몽상》(1985)

그런데 아래의 용례들에서는 '시쳇말'에 뒤따르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유행을 탄 말이라기보다는 비하하는 느낌을 주거나 속된 느낌의 말, 비전문적이거나 관용적인 표현에 가깝다. 이들은 뒤따라오는 말의 인기나 유행과 관계없이 나쁘고 적나라한 표현, 일반 대중이 쉽게 아는 표현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듯하다. 그래서 '속어'나 '막말'과 뜻이 통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쉬운 말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여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용례

- 이렇게 되면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시쳇말**로 하숙집과 다름이 없다.《김형국: 사람의 도시》(1985)
- 글쎄요, 몇 번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도요. **시쳇말**로 풍을 맞았다고나 할까요.《김연경: 고양이의 이중생활》(2009)
- 현재로서는 백중지세, 어느 쪽의 우세도 점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칫 줄을 잘못 골랐다가는, **시쳇말**로 썩은 동아줄을 붙들었다가는 주교 자리는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테니까요.《김경욱: 황금 사과》(2002)

물론 이 둘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용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시쳇말'의 의미가 그 기원의 한자어 '시체(時體)'에서 조금 더 나아가 오랜 기간 통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시쳇말'의 뜻풀이를 아래와 같이 더해 보았다.

시쳇말 (時體 –) [명]《주로 '시쳇말로'로 쓰여》
①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말.
② 통속적으로 쓰여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비하하는 느낌이나 속된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쓰는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형주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에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3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석눈

글 **김도연** 소설가

어린 시절 내 고향 대관령의 겨울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빼놓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쪽 땅에서 겨울이 가장 긴 고장이기 때문이다.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태백산맥의 고지대에 자리한 마을이기에 빠르면 시월에 시작된 눈이 다음 해 오월까지 날릴 때도 많았다. 대관령은 예부터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6번 국도가 통과하는 곳이다. 인근에 오대산국립공원, 용평스키장, 그리고 여러 목장들이 대관령의 북쪽 황병산 자락에 포진해 있다. 양떼목장과 눈 덮인 선자령도 빠트릴 수 없다. 그 사이사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름 한 철 고랭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름 한 철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엄살을 덧붙여 설명하자면 일년 중 반이 겨울이기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만큼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늦게까지 머무르기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눈에 대해 각별한 곳이 바로 대관령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함박눈

눈은 나만 기다린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기다렸다. 아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다렸을 것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운바람만 씽씽 달음질치는 것보다 거기에 눈발이 섞여 있는 게 그나마 덜 추웠다. 눈은 늦가을의 삭막한 풍경을 일시에 지워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눈보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 눈의 종류도 다양했다. 밀가루나 쌀가루, 설탕처럼 내리는 가랑눈이나 싸락눈, 분필이나 누에처럼 쏟아지는 소나기눈, 물기가 많은 초봄의 찰눈이나 떡눈, 해와 달이 떠 있는데도 내리는 여우눈, 모두가 잠든 밤에 내리는 밤눈이나 도둑눈, 눈과 비가 섞여 있는 진눈깨비……. 물론 이 모든 눈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눈은 함박눈이다. 어른들은 그 눈을 '박석눈'이라고도 불렀다.

눈은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지만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내린 뒤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게 붙여졌다. 며칠 동안 쏟아져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은 길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였다가 뒤에 내린 눈들과 달라붙어 거의 얼음처럼 변해 버린 묵은눈과 쇠눈, 길눈은 넉가래로 치우는 게 그나마 쉬웠지만 마당 가장자리에 어른 키보다 높이 쌓여 있는 눈 더미는 거의 얼어 있어 쇠로 된 삽을 이용해 담장 너머로 던지거나 리어카에 담아 버려야만 했다. 어느 겨울엔 눈 더미 속으로 굴을 뚫고 들어가 방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다. 입구는 가마니로 문을 달고 바닥엔 멍석을 깔아 화로와 앉은뱅이책상까지 들여놓고 방학 숙제를 하였으니 대관령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호사였다. 물론 에스키모처럼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다.

커다란 눈썰매, 발구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아버지는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발구를 수리하거나 새 발구를 만들어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발구는 일종의 커다란 눈썰매다. 나무가 주 연료인 산골에서는 겨울에 일 년 치 땔나무를 모두 하는 게 관례였다. 여기서 발구는 대단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 눈만 적당히 쌓여 있다면 지게나 리어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운기도 없던 시절이었다. 산비탈에서 나무를 한 뒤 골짜기로 끌고 내려와 발구 위에 가득 싣고 사람이 앞에서 끌어야만 하는데 미끄러운 눈길이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땔감을 운송할 수가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겨우내 나무를 해서 울타리 옆에다 나뭇단을 세웠다. 서풍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울타리보다 높은 나뭇단들이 집으로 몰아치는 바람까지 막아주어 가족들은 따스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폭설이 시시때때로 내리는 겨울방학 동안 나의 관심사는 당연히 썰매와 스키를 타는 일이었다. 동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아버지나 형이 만들어 준 나무 스키를 비탈밭에서 타느라 바빴다. 옷과 신발이 젖으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말렸다. 비록 정식 스키장은 아니었지만 밭둑을 이용한,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점프대까지 있어 겨울 오후면 늘 동네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지금 스키와 비교하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스키지만 그래도 그 시절 눈 덮인 대관령에선 소중한 운동기구였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스키 바닥에 초칠을 했고 가운데에는 홈을 파 눈 위에 줄이 새겨지게 멋도 부렸다. 페인트가 생기면 스키에 칠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옆 마을의 용평스키장에서 서울 사람들이 타는 진짜 스키를 갖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생기지 않았다. 간혹 눈 덮인 신작로 위로 택시의 꽁무니에 밧줄을 매달아 스키를 타는 외지인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산장에 머무르며 겨우내 스키만 타다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산장이란 낱말이 왠지 멋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눈포래' 치는 저녁

하여튼 눈은 계속 내렸다. 내리 사흘을 퍼붓기도 했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내리기도 했다. 낮에도 내리고 밤에도 내렸다. 엄마를 따라 십오 리 떨어진 외갓집으로 걸어가는 장광[1]에도 서쪽에서 눈포래(눈보라)가 몰아쳐 뒤로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적도 많았다. 돌아오는 길은 그나마 눈을 등에 지고 걷는 터라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어느 겨울엔 이웃 마을의 한 사내가 깊은 밤 술에 취해 걷다가 눈에 홀려 그만 명을 달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눈에 홀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길을 계속 맴돈다고 하는데 혹 밤길을 걷다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눈을 부릅뜨곤 했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바짓가랑이에는 눈과 얼음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어 엄마는 바지와 장화를 부뚜막에 올려놓고 말렸다. 그러면 벅[2]에는 바지와 장화가 말라가며 피어나는 쿰쿰한 냄새가, 열어 놓은 가마솥에서 피어나는 김처럼 번져갔다. 부뚜막 가장 따뜻한 곳에선 이미 내 운동화며 양

1) '자갈땅'의 강원도 방언.
2) '부엌'의 강원도 방언.



말도 말라가고 있었다. 눈포래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초저녁 벅의 버강지[3] 앞에 앉아 불을 쬐며 바라보는 마당은 성탄절의 카드와 그다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다. 외양간에선 소가 구유의 여물을 먹느라 콧김을 무럭무럭 피워냈고 대문도 없는,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전기가 들어오는 건넛마을의 집들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송이 너머에서 아른거렸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우리 집 벅의 바람벽에 걸려 있는 남포등 심지에서 타오르는 불꽃, 끄름[4]이 가득 묻어 있는 대들보의 창호지, 갈구친다[5]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며 반찬을 만드는 엄마, 가슴에 한 아름 장작을 안고 들어오는 아버지, 이 모든 풍경들을 어느 순간 모두 지워버리며 퍼붓는 박석눈,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미처 헤아릴 수도 없는……. 그제야 나는 하품을 두어 번 토해낸 뒤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밥 먹자고 엄마에게 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갔다. 형과 큰누나는 대처로 떠났고 작은누나는 어디로 놀러갔는지 돌아오지 않는, 눈보라치는 저녁이었다.

박석눈 내리는 밤

결국 화가 난 아버지는 오밤중에 작은누나를 찾아 떠났고 엄마는 등잔불 옆에 앉아 밥상 위에 깔아놓은 콩을 고르던 그 밤, 나는 윗방의 솜이불 속에 엎드려 박석눈이어도 좋고 함박눈이어도 상관없는 눈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음악이었다. 바람에 날려 온 눈송이는 마치 말벌처럼 문풍지를 툭, 톡, 퉁, 틱, 통, 통……. 북을 치듯 두드리거나 뜯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눈송이의 음악이 피어나는 공명통 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영영 다시 듣지 못할 음악이라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잠들었다. 잠이 들면서 나는 누나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리란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석눈 내리는 밤이었다.

3) '아궁이'의 강원도 방언.
4) '그을음'의 강원도 방언.
5) '걸리적거리다'의 강원도 방언.



김도연

소설가. 199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2000년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11년 무영문학상을 수상했다.소설집으로 『빵틀을 찾아서』, 『콩 이야기』, 『이별전후사의 재인식』, 장편소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삼십 년 뒤에 쓰는 반성문』, 산문집 『강원도 마음사전』, 『패엽경』, 『눈 이야기』 등이 있다.

북한 손말 4,000개를 13개의 부문으로 소개한

《손말사전(부문별손말)》

글 **임서희** ㈜데프누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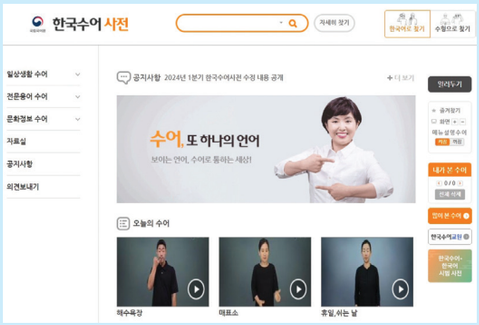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소멸하고 또 생성되기도 한다.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정보화 속도만큼 언어의 변화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한민족이었던 남한과 북한의 언어 역시 분단 이후 8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이가 30% 이상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농인[1]의 언어인 '수어'는 어떨까? 북한에서는 수어를 순우리말인 '손말'이라고 부른다. 남북 간 수어와 손말 상호 수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불과 15%로 약 71%의 수형은 다르게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2]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지문자부터 확연히 차이를 보여준다. 오히려 남북 청인들의 대화보다도 남북 농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간한 수어사전은 《손말학습》(2005),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 《조선손말》(2015, 2017),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제작해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수어사전》[3]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은 《손말사전(롱아학교용)》, 《조선손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북한 장애자보호사업국 조선롱맹경제문화교류사에서 새롭게 편찬한 사전이다. 4,000개 용어를 조선손말로 표기하고 '경제, 교육, 정보, 국방, 건설, 농업, 환경, 문학, 예술, 체육, 보건, 상업, 법률' 등 13개의 부문으로 구성했다. 사전 뒤쪽에는 찾고자 하는 손말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에 해당하는 '자모순서(가나다순)로 된 찾아보기'를 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의어와 반의어 같은 관련어 정보도 함께 수록해 독자들이 보다 풍부한 손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의 사이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분류', '롱인들이 민족어를 왜 힘들어하는가', '세계손말통역원협회 소개' 등과 같이 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상식을 소개해 비장애인 독자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

《손말사전(부문별손말)》은 남한 수어와 북한 손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임과 동시에 남북 수어에 대한 언어·문화적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가령 해당 사전에 정치, 군사 분야 어휘가 많이 수록돼 있는 반면에 종교 관련 단어가 매우 적은 것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수어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201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통한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은 웹으로 제작돼 농인과 청인 모두 한국수어 일상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당 사전은 수어 정보(수어 동영상,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원어 정보, 동의어, 반의어 등)와 한국어 정보(표제어, 품사, 뜻풀이, 용례)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한국수어사전》은 크게 일상생활, 전문용어, 문화정보 등 세 갈래로 구성됐다. '일상생활'은 의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나눠지며, '전문용어'는 법률, 교통, 의학, 종교 등의 분야로 나뉜다. '문화정보'에서는 한국식 돌검, 잔무늬 거울과 같이 다양한 문화정보를 수어로 설명하고 있다.

남북 청인들의 언어 차이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남북의 '수어와 손말'이 각각 존재하고 그 차이가 청인들의 언어보다 더 크다는 점에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자료나 연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 수어의 이질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막으려면 남북 수어를 통합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문화·학술 분야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진다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처럼 가장 먼저 《한국수어사전》과 《손말사전》 등 남북 대표 수어사전을 통해 수어와 손말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전산화하는 말뭉치 구축 작업부터 진행돼야 할 것이다. 멀지 않은 때에 《남북수어(손말)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임서희

예비사회적기업 데프누리(Deaf-Nuri) 주식회사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하는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서비스와 통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청년 오픈랩 프로젝트'에서 남북 수어를 의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통일교육원과 ㈜열린책들이 함께 제작한 평화 통일 교육용 도서,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2023)을 집필했다.

1) 북녘에서는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롱인'으로 쓰고 읽는다.
2) 이난희·최상배, 「북한수어의 수형 분석」,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7, p89.
3)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

임보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전문위원

사전 편찬인으로 일한 30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는 어려운 숙제

2006년 사업회에 입사한 임보선 편찬전문위원은 단일어문규범부장, 집필부장과 편찬부장, 편찬실장을 거치며 총 25회 개최된 공동회의 중 20차례 참석해 북측편찬위원회와 《겨레말큰사전》을 공동 편찬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현재 사전 원고 교열, 지침 정비 등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사 이후 18년 동안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를 소개한다.



↑ 제16차 공동회의(2008. 12. 13.~12. 16.) 참석을 위해 찾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 제8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2024. 2. 7.)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 사업회에 입사해 올해로 18년째 편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단일어문규범부 부장, 집필부 부장, 편찬실 부실장과 실장을 거치면서 《겨레말큰사전》 어문규범 작성, 사전 원고 집필, 교열 등 사전 편찬 실무와 편찬실 총괄 등 여러 일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회에서 편찬전문위원과 남측편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회 입사 전에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과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사전과 관련한 일을 줄곧 해 왔으니 국어사전과 얽힌 인연이 깊습니다.

편찬전문위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편찬원들이 집필한 사전 원고를 깁고 더하는 작업을 합니다. 1994년부터 30년 동안 사전 편찬 일을 해왔지만 사전 원고를 깁고 더해 더 나은 원고를 만들어 내는 일은 제게 아직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밖에 사전 원고 집필 지침, 교열 지침 등 지침 검토, 편찬 사업 계획 검토 등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30만 7천 개 올림말이 수록되는 대사전 원고를 집필하고 교열하는 사전 편찬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제 손으로 원고가 만들어지면 그 고됨을 상쇄하는 보람이 있어 즐거움이 더 큽니다. 오히려 힘



↑ 제13차 공동회의 모습(2008. 2. 19. ~ 2. 21., 개성)

든 시기를 떠올린다면 편찬실장직을 맡았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사전 편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역량과 강점을 가진 편찬원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자로서 각종 편찬사업을 조율하는 일은 참으로 난제였습니다.

공동회의에 20차례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한번은 집필회의에서 어떤 올림말의 뜻풀이 문제로 저와 북측 편찬위원 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북측 편찬위원이 누구의 뜻풀이가 더 적절한지 다른 북측 편찬위원에게 묻게 되었는데 그 북측 편찬위원이 "림(임) 선생이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은 조에 있던 북측 편찬위원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올해 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사업회에서 30만 7천 개의 올림말이 실린 종이사전용 원고 집필 작업을 했고 올해는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지침 작성 및 언어정보를 보완합니다.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양과 구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북 언어문화 통합에 최적화된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공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미합의 지침, 형태표기, 사전 원고를 합의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남북이 함께 볼 수 있는 《겨레말큰사전》을 하루빨리 세상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측 편찬위원들을 만나 두 손을 꼭 잡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2005~2015) 동안 25차례 공동회의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 편찬위원도 있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회의에서 뵀던, 지금 아흔이 넘으셨을 북측 편찬위원의 안부가 걱정됩니다.

끝으로 가장 좋아하는 '겨레말'은?

'슬기'.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사업회에 '우리의 정서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낱말'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회 대표로 낱말을 제안해 선정된 적이 있는데, 그 낱말이 '슬기'입니다. '슬기'란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재능'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공동회의가 중단된 2015년 이후 사업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업회 구성원의 '슬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4 겨레말 소식

제8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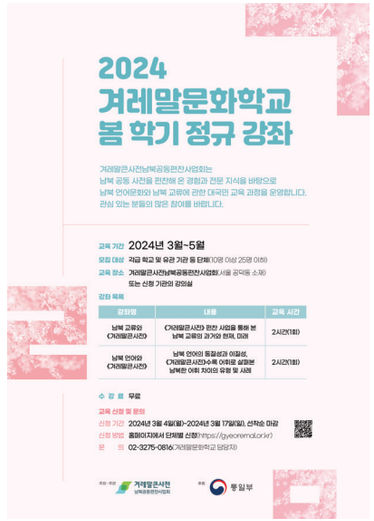


지난 2월 7일, 사업회는 제8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과 2023년 제84차 남측편찬위원회에서 제7대 남측편찬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명지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강출(사업회 편찬실장), 김재용(원광대학교 교수), 도원영(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박덕규(단국대학교 교수),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이승하(중앙대학교 교수), 임보선(사업회 편찬전문위원), 정인호(대구대학교 교수),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편찬위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이번 제8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록 및 2023년 사업별 추진 실적과 성과, 2024년 주요 사업 세부 계획, 편찬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발간과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업회 홈페이지
해살이

2024년 겨레말문화학교 봄 학기 정규 강좌 운영



지난 3월 4일, 사업회는 '2024년 겨레말문화학교' 봄 학기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성과와 남북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문화와 남북 교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겨레말문화학교는 지난해 시민 과정 운영과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정규 강좌와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

봄 학기 정규 강좌에서는 각급 학교와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와 남북 교류를 주제로 강좌를 꾸렸다. 이번 정규 강좌에는 총 6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 한국수출입은행, 서강대학교 등 3곳을 선정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여름 학기에는 국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강좌를 연다. 특별 강좌는 지난 3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한 미래 사전, 남북 교류 등의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회 홈페이지 내 겨레말문화학교 페이지에서는 학교 동아리, 교과 수업,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문화학교

제57차 정기 이사회 회의 개최



지난 2월 21일, 사업회는 제57차 정기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과 권재일(한글학회 이사장), 박병철(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성준(㈜키인 컨설팅 대표이사), 유현경(연세대학교 교수), 이상숙(가천대학교 교수), 장소원(국립국어원장), 정호성(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최호철(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사(이상, 가나다순)가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및 사업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년 결산서 승인에 관한 건',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까지 총 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이사진은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발간 및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발·공개 등에 관한 사업회 중장기 계획을 검토했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원활한 사전 작업과 보다 완성도 높은 원고의 관리를 당부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제6회 사업회 학술 연찬회 개최



지난 3월 27일, 사업회는 제6회 학술 연찬회(아래 '연찬회')를 개최했다. 남호성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최소한의 수학'을 주제로 연찬회를 열었다. 남 교수는 삼성SDS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미국 예일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적 언어지능연구소 해스킨스에서 미 정부 산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 연구소 '남즈(NAMZ)'를 설립해 인문계 학생들에게 수학과 코딩을 가르치고 단행본 『수학을 읽어드립니다』를 집필하는 등 언어공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남 교수는 연찬회에서 인공지능 이해에 기본이 되는 수학적 개념(벡터, 행렬, 함수)을 설명하며 챗지피티(ChatGPT), STT와 TTS,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등 최근 인공지능 생태계에 관한 동향을 실례를 들어 강연했다. 아울러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언어공학자로서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업회는 지난 2022년부터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데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 사진



겨레말 낱말 풀이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http://dic.gyeoremal.or.kr)'와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②				■	③		④
	■	■	■	■	■	■	
	■	■	⑤	⑥		■	
	■	⑦	■		■	■	
■	■		■		■	■	
⑧	⑨		■	⑩			■
■		■	■		■	■	■

① '개나리꽃'의 북녘말. 울타리용으로 흔히 쓰이는 꽃이라 붙은 이름이다.

예) 이른봄에 노랗게 핀 {○○○꽃}.《조선말대사전》(북)

② 북녘에서 '울보'와 같이 '자꾸 울기를 잘 하는 사람'을 놀려 이르는 말. 2017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 처음 등재되었다.

예) 어려서부터 {○○○○라고} 놀림을 받은 점순이는 반가워도 서러워도 곧잘 울었다.《보리고개》(북)

③ 어떤 일에 경험이 없고 서툰 사람을 뜻하는 말로 남녘의 '아마추어'에 대응되는 북녘말. 북녘에서 외래어로는 '아마츄어'라고 한다.

예) 씨동이는 {○○○라고} 품삯을 하루에 50전씩밖에 더는 주지 않았다.《두만강》(북)

④ 1946년 설립된 북녘의 기상관측기관으로 남녘의 '기상청'에 해당한다. 이곳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상, 수문, 해양, 농업, 수산업, 항해, 운수,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측과 예보 업무를 수행한다.

예) {○○○○○} 첨단기술개발사의 연구집단이 재해성이상기후로 인한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자동수문관측장치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조선신보》

⑤ 상품의 포장이나 꼬리표에 표시된 '바코드'를 이르는 북녘말. 2017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 정보통신용어로 처음 수록되었으며 사전에서 '검은 선을 그 두께와 간격을 변화시켜서 배렬하고 선들의 조합에 의해 자료를 표시하는 코드'라고 풀이하고 있다.

⑥ 주둥이가 길게 나온 것이 코끼리와 닮은 딱정벌레 '바구미'의 북녘말. 그 생김새에서 본딴 이름이며 2017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 처음 수록되었다.

예) 농장에서는 … 식물성농약들을 만들어 시비해 벼대벌레, {벼물○○○○○}, 벼잎말이벌레, 강냉이대벌레의 서식을 방지하고 있다.《조선신보》

⑦ 우유를 진공 상태에서 졸여서 농축한 것으로 북녘에서 한자어 '연유(煉乳, 북녘 표기는 '련유')'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다.

예) 위생복차림을 한 녀성로동자들이 마침 {○○○}, 빠다, 칼피스를 비롯한 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서해안을 따라서》(북)

⑧ 여왕벌이 될 새끼에게 먹이려고 꿀벌이 분비한 액체 '로열 젤리'. 본디 '왕유(王乳)'라는 한자어가 있었으나 거의 쓰이지 않고 북녘에서는 이를 다듬어 '이 단어'로 쓰고 있다.

예) 령락한 가세를 정리하여 룡정으로 들어온 일가였으나 종손에게 그냥 {○○○을} 먹일 여유는 있었다.《소원》(북)

⑨ 꿀벌이 나무나 수액에서 수집한 물질과 벌의 타액선에서 나온 효소가 섞여 만들어지는 물질인 '프로폴리스'의 북녘말. 벌이 만드는 끈끈한 물질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예) {○○은} 고급락카의 원료로,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로 리용된다.《꿀벌의 경제적 효과》(북)

⑩ 농구에서 상대편이 반칙을 범하였을 때 일정한 지점에서 상대편 방해 없이 공을 던지도록 하는 '벌투'로 흔히 남녘에서 '자유투'라고 한다. 북녘에서 '벌투(罰投)'를 다듬은 말이다.

예) 경기 마감 30초 전, {○○○를} 얻은 상대방이 두알 중 한알만 성공해서 점수가 72대 73이 되였다.《열정의 나래》(북)

정 답

①울타리꽃 ②울기쟁이 ③햇내기 ④기상수문국
⑤선코드 ⑥코끼리벌레 ⑦졸인젖 ⑧왕벌젖
⑨벌풀 ⑩벌넣기

2024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2024년 겨레말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정해진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제주에서 팽나무를 제줏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2음절)
단서! 15쪽 〈심상〉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3년 겨울호 독자 의견

제4회 국제학술포럼에서 소개한 토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④함경도어
함경도어는 제2회 국제학술포럼에서 소개한 토착어입니다.

[겨레의 창]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오래 누적된 정신적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토착어의 보존과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강○규

[집중 탐구]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을 준비하며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을 엿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_두○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종이사전보다 포털과 웹 사전을 쓰는 시대에 맞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까지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한○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땅벌과 따벌
남에서 편찬된 다양한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땅벌' 또는 '따벌'의 뜻풀이, 용례들을 표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_이○욱

[겨레말 사람들] 《겨레말큰사전》 편찬원으로 일한다는 것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졸업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편찬원'이라는 직업과 사전 편찬 작업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사전과 달리 《겨레말큰사전》 편찬원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전해져 인상 깊었습니다. _김○연

2024 겨레말문화학교 하반기 강좌 안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 사전을 편찬해 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전, 남북 언어문화 및 교류 등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 강좌 6월 신청, 7월 교육

– 모집 대상: 남북 언어와 남북 교류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개인 신청)

	강좌명	내용	교육 시간
1	미래 사전을 읽다. AI시대 언어 정보와 사전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언어 정보'와 '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1시간 30분
2	영화로 알아보는 《겨레말큰사전》	사전 편찬에 관한 영화를 중심으로 《겨레말큰사전》의 뿌리가 되는 한국어 사전편찬 역사를 조망	1시간 30분
3	남녘에서 북녘말로 살아가기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강의를 통해 남한에서의 언어 적응 경험을 이해하고 향후 남북 언어 통합의 방안 모색	1시간 30분
4	냉정과 열정 사이, 《겨레말큰사전》과 사회문화교류	《겨레말큰사전》 합의 경험과 남북 교류 현장의 어려움, 뒷이야기 등 소개	1시간

정규 강좌 8월 신청, 9월~11월 교육

– 모집 대상: 각급 학교 및 유관 기관(10명 이상 단체 신청)

	강좌명	내용	교육 시간
1	남북 언어와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겨레말큰사전》 수록 어휘를 통해 살펴본 남북한 어휘 차이의 유형 및 사례	2시간 (협의 가능)
2	남북 교류와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본 남북 교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2시간 (협의 가능)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 배포

–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수업 연계 활동, 통일교육주간 등 학교 및 기관 활용 자료 배포
– 사업회 홈페이지 내 겨레말문화학교(학습 자료)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자료 내려받기

문의: 겨레말문화학교 담당자(02–3275–081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